

치 사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생명의 소리가 아름다운 봄날, 여러 사부대중을 모시고 현대불교문학상과 불교문에 신인상 시상식,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기념 시낭송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노래를 즐기는 생활을 했으며, 이러한 노래는 시가 되고 문학이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

**문학은 우리 민족문학의 커다란 줄기
이자 현대문학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원효 스님께서서는 모든 언설은 가명
(假名)에 지나지 않고 실상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어가
실상을 표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반대로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마음의
근원과 정토세계를 추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문명의 문제점
해결과 인간이 바라는 정토의 세계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여기**

**모이신 문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종단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지난 1996년부터 ‘현대불교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작가 개인의 종교와 문학이념을 넘어
수여하는 본 현대불교문학상은 그동안
수십 분의 국내 명망 있는 문학가를**

**수상자로 내면서, 어느덧 한국문학계의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중견시인 이건청 선생님을
비롯한 시조시인 김월준 선생님,
소설가 윤홍길 선생님, 문학평론가
임현영 선생님을 수상자로 선정하였
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시는 선생님들의 문학적
공적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보답**

**에도 불구하고, 본 상의 수상을 허락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상의 발전과 권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악산 오현 스님과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시인 이근배 심사위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님들
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애써주신 현대불교
문인협회 수완스님, 혜관스님, 로담**

**스님을 비롯한 계간 <불교문예>관계
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